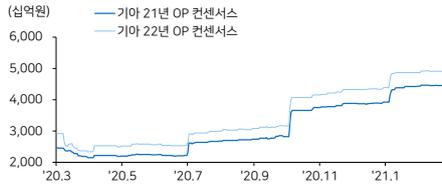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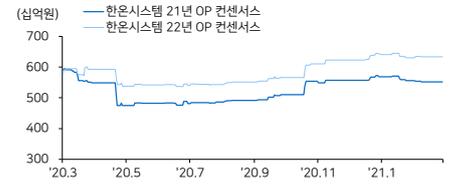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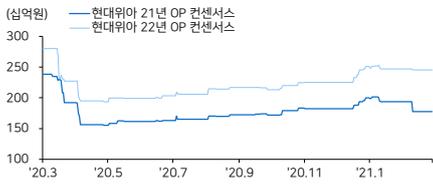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우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전동화사업 조직재편... 전기차 승부수 건 현대차 (디지털타임즈)

현대차는 최근 연구개발본부 산하 전동화선행개발과 전동화품질 담당 조직을 기존 팀급에서 실급으로 격상시킨. 팀 단위 조직일 경우 실무진 위주로 조직이 구성되나 실급으로 격상하면 임원급이 장을 맡게 되고 위상도 올라감.
<https://bit.ly/3s73tPb>

제네시스 4월 중국 론칭...상하이 오토쇼서 공식화 (THE GURU)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오는 4월 상하이 오토쇼를 시작으로 중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섬. 중국 프리미엄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G80과 GV80의 초반 흥행 성적에도 관심이 집중됨.
<http://bit.ly/3f1TFMl>

테슬라 이어 폭스바겐도 배터리 독립선언...현대차 가세할까 (머니투데이)

테슬라, 폭스바겐 등 전기차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자체 생산을 실현하는 중. 현대차도 남양 연구소 내 전기차용 배터리 R&D 조직을 선행기술, 생산기술, 배터리기술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내재화 준비 중.
<https://bit.ly/3f25xUY>

일본, 연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 도로 주행 허용 (이투데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국외에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 운송 차량법의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배송 로봇 도로 주행을 허용할 계획임. 배송 로봇 도로 주행 허용을 통해 업계의 일본 속 개진, 생산성 향상, 친환경 효과까지 성장 전략에 심을 계획.
<http://bit.ly/3fFyBm8>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5월 가동...“아세안 공략 본격화”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의 ASEAN 전략기지로 세운 인도네시아 공장이 오는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연내 현지 전략형 신차(컴팩트 SUV, 소형 MPV)를 출시하고, 내년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는 것이 목표.
<http://bit.ly/2QpGyH7>

현대차, 국내 첫 민간 충전사업자 '한충전' 인수 나섰다 (전자신문)

현대자동차가 국내 유력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인수를 추진할. 계획대로 현대차가 한충전을 인수한다면 그동안 대주주인 한국전력공사의 반대로 확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의 정상화가 기대됨.
<http://bit.ly/3vLy8UB>

반도체 대란 심화, 스텔란티스 픽업트럭 생산도 감축 (글로벌이코노믹)

로이터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20일 픽업 트럭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함. 픽업트럭은 수익성이 좋아 자동차 업체들이 최후의 카드까지 동원하고 나섰음을 시사함. 포드 역시 오하이오주 공장 가동 중단, 쉐보레 공장 단속 가동을 발표함.
<https://bit.ly/2PmFTZA>

중 비아디 산하 푸디전지, 유럽 배터리 공장 신설 (글로벌비즈)

푸디전지 내부 공시에 따르면 푸디전지의 첫 해외 배터리 공장은 유럽에서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됨. 푸디전지는 신설 유럽 공장에서 리튬이온배터리의 생산, 포장, 운송 등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2P1uANb>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